영상에 속지 말고 실체를 관계하자

(여호수아 1:1~18)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상에 속지 말고 실체를 관계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영상에 속지 말고 실체를 관계하자'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이 영상이고, 직장의 동료들이 다 영상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상을 실체로 생각하고 살지만, 선민이 실체로 생각하는 것은 선민 됨을 지워버리는 불행의 단초가 됩니다. 이 지구는 일종의 스크린이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영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 서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이 보통 과제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5~6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 강하고 담대 하라…"라고 격려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 문장처럼 뜻이 명확한 문장이 어디 있다고, 도대체 뭘 묻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 하라’고 하신 것인데 물어볼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니, 가나안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앞선 문명을 이루고 있더라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보시는데 ‘적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 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붙잡는 손의 힘을 강하게 하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해서 그대로 적용하자면 오늘 본문 5~6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손의 힘을 강하게 하여 나를 붙잡고 무릎의 힘을 강하게 하여 나를 따라 오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뒤에 서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백으로 앞장서 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적들 앞에서도 절대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즉 ‘강하고 담대하게 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대로 풀어보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에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여호수아는 뒤따라가면서 단지 손에 힘을 강하게 하고 무릎의 힘을 강하게 해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다리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 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적을 향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야 하니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싸워야 될 적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기가 죽으면서 붙잡히든지 이길 것 같아서 기가 살아서 붙잡히든지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서는 내 마음이 적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 마음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과 그 군대에게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한 편은 기가 죽어서 사로잡히고 다른 한 편은 의기양양해서 사로잡히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상대방에게 마음이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이 당연히 적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과 무릎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강한 무릎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향해서 가시면서 적진을 분쇄하시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적들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적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마음을 적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과 무릎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겠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7~8절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 하라’는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적들을 향하지 말고 나는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즉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동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율법이 증거인데 증거를 따라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말씀으로 글자와 의미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행해야 되는 행위의 규범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율법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내 마음은 그 율법이라는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이어져 나가서 붙잡게 됩니다. 증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증거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간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이질감이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 만큼의 연합 가능성이 만들어지면 율법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심전심으로 올라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겠습니까?

적들이 앞에 있으면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병법을 묵상해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데, 다 제쳐두고 율법을 묵상해야하니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건 마치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까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깁니다. 내 자식에게 문제가 크게 생겨서 그 문제의 적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있는데 해결할 방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증거물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하나님께 이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전쟁터에서 하나님께로 빼내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 전쟁터를 만드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적 전쟁사에서 전쟁에 임하는 지도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을 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히11:1~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그것 자체가 있게 하는 실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실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태 승철'이라는 존재가 지워지면 이 땅에서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태승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땅에서 천만 인, 만만 인이 태승철을 없애려고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은막 위에 영상이 비치고 있을 때에 영사기를 끄든지 필름의 부분을 편집해서 제거하지 않는 한 벽돌에라도 영상이 비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영상이 싫어서 영상을 없애려고 해도 영사기를 끄지 않는 한 없앨 수 없고, 아무리 그 영상이 좋아서 붙잡아 두려고 해도 영사기가 꺼지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비쳐지고 영사기가 꺼지면 영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은막에 비춰지는 영상을 너무 좋아해서 은막을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영상의 실체는 필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보실 때에는 세상의 스크린에 비추인 영상을 보십니다. 이 백합화의 실상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백합화의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필름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백합화가 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합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올라가고, 생각하시는 당사자인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삼라만상이 지구의 스크린에 비추어지고 있는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스크린에 비쳐지고 있는 영상이라는 것이지요. 그 영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영화

가 좋다고 스크린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필름만 가지면 되는데 스크린을 들고 다니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 스크린이 좋아서 내 모든 노력과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영사기가 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 내 마음을 쏟고 살 때에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약4:14절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합니다. '안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영상'이라는 것이고 '실체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벧전1: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말라버릴 풀이고 떨어질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마주하게 될 가나안 적들은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여도 은막에 비치는 장면이고 영상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들의 실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지워지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적들도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남아있으면 그들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막을 보면서 영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3D영화를 보면 칼을 든 적군이 나를 향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실감나지만 영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족들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러나 영상일 뿐이니 속지마세요. 자녀를 보면서 실감나는 실제 존재로 생각해서 마음을 두는 것은 은막에 비춰진 영상에 마음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뒤면 시들어버릴 백합화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백합화의 영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마음을 들여보내셨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대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십자가 복음이 없었으니 그렇다 치고라도,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만물이 안개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말라버릴 풀과 떨어져버릴 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 세상이 실체처럼 보이고 현실로 보이고 귀중하게 보이냐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다 아침 햇빛에 없어지는 안개가 맞아요. 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우리는 가족에게 마음을 두면 안 되고, 가족이라는 영상의 실체가 들어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이 영상은 하나님 속에 이들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증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율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육체가 따듯하기도 하고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살이 느껴지는데 이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증거인데 눈앞에 보이는 자식은 하나님 속에 내 자식의 실체가 있다는 증거입

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자녀를 만날 때에도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창조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속에 있는 실체와는 다른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나 일이나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지 영상일 뿐이므로 이 영상의 실체는 하나님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물주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 조물주이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드렸을 때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돈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다이아몬드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들 중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제일 귀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릴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조물주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건희 씨에게 주스를 사드린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조물주에게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드리면 조물주께서 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마음을 눈에 보이는 영상에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1억짜리 수표를 받아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봐 감출 봉투를 찾는데, 구석에 너덜너덜한 봉투가 하나 있어서 급한 대로 거기에 넣었습니다. 정신없이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 봉투가 없어졌어요. 마음이 다급해져서 봉투를 찾아다닙니다. 봉투가 귀중한 이유는 1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영상일 뿐이고 아침 안개일 뿐이지만, 이 세상의 존재들이 귀중하게 보이고 실체처럼 보이는 이유는, 조물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그것에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자체는 헌 봉투 같은 것이고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봉투 같은 영상의 실체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집어넣고 있으면 1억 짜리 수표를 넣은 것과 같아서 영상들이 귀해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자녀가 귀합니까? 그것은 증거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하나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만나야 하고 그 자녀를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서의 가족보다 자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먼저 찾아야하고 먼저 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영상에 묶여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라고 하신

것이고 율법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이고, 생각하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너의 일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는 증거이므로 그 증거를 따라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쇠밧줄에 묶여버렸습니다. 마치 쇠밧줄에 묶여 있는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뜨려고 해도 뜰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영상에 묶여 버렸습니다. 그 영상들의 실제모습은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 생각 속에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상들에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영상의 차원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벧전1:24~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영상이라서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 영상이 존재하는 스크린 위에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만큼은 세세토록 구원의 길로서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이면 모든 영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생각, 생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에게 요구 된 싸움은 영상들로부터 마음을 떼 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는 너무나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 하라, 강하고 담대 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 영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사장님은 영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사장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필름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사장님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겉으로는 굽실거려야 할지라도 속으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여호수아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여 적들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를 붙잡고 사장님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영상이 비쳐지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마음을 드리면 조물주가 내 마음을 받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가운데 사장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바꿔 가시면, 이 세상의 사장님의 영상도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영상을 끊고 마음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상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실체와 관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